

복덕방

3111 손다정

주제: 근대화 속에서 소외되어 가는 구세대들의 삶의 비애

갈래: 현대소설, 단편소설

시간적 배경: 1930년대/공간적 배경: 서울 변두리의 한 복덕방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성격: 사실적, 현실 고발적

특징: 세대 간의 갈등을 그림, 상징적인 인물들을 등장시켜

주제를 형상화 함

<줄거리>

발단: 소외된 노인들이 복덕방에 모여 시간을 보냄

전개: 안 초시는 박희완 영감을 통해 개발 정보를 입수함

위기: 부동산 투자 실패에 대한 비난이 안 초시에게 돌아감

절정: 절망에 빠진 안 초시가 자살함

결말: 장례식에 참석한 서 참의와 박희완 영감은 울분에 찬 눈물을 흘리고 영결식에 온 사람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두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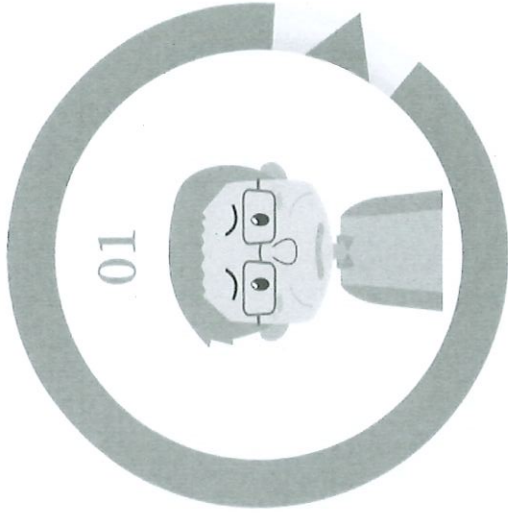
<주요 인물>

서 참의: 안 초시의 친구이다. 젊었을 때는 무인으로 기개가 넘쳤지만 현재는 모두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다. 화려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실에 비애를 느낀다.

안 초시: 복덕방에서 소일을 하며 딸에게 의존하고 있다. 근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던 중 부동산 투자를 통해 허황된 꿈을 꾸다. 그 꿈이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자살하고 만다.

박희완: 안 초시의 친구이다. 복덕방에서 일본어 공부를 하며 대서업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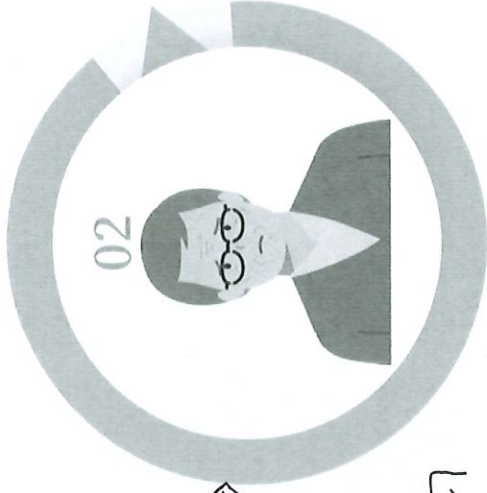
안경화: 안 초시의 딸로 유명한 무용가이다. 허세와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는 위선적인 인물로 새로운 문명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01

서 참의
복덕방 주인

진주
(국검 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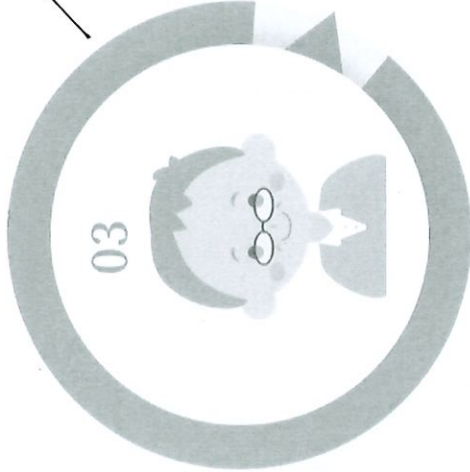


02

안 초시

과거에는 한 밀천 잠은 경력이 있
으나 현재는 딸에게 생활을 의존하
고 있음.

"
(도움 받아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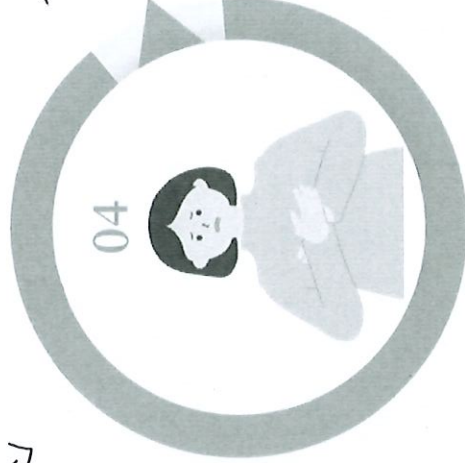


03

박희완

대서업을 하기 위해 복덕방에서
틈틈이 공부를 함 -> 하지만
실패함

"
(등한시함)



04

안경화

안 초시의 딸. 아버지의 죽음보다
본인의 명예가 더 중요한 냉철한 인간.

< 복덕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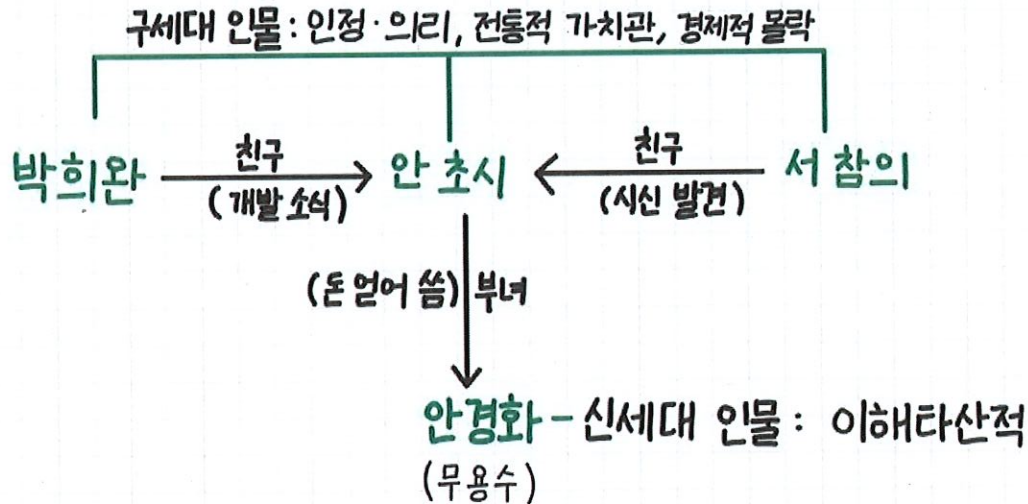
↳ 부동산 중개 사무소

시대 : 일제 강점기

★ 초시 : 과거의 첫 시험을 급제한 사람

★ 참의 : 대한제국 시절에 위관 계급중 맨 아래 계급

인물 관계도



줄거리

관변 모씨가 축항 후보지였던 땅을 샀으나 그것이 좋지 되었다.

관변 모씨는 이 땅을 처리하기 위해 박희완을 수소고 박희완이 그 이야기를 안 초시에게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안 초시는 딸에게 출자를 권하였다.

안경화는 솔깃하여 연구소 집을 담보로 하여 어느 신락 회사에서 땅을 매입하기 위한 돈을 빌렸다.

일년이 지나도 그 땅이 축항이 된다는 말은 없었다.

안 초시는 실의에 빠져 서 참의가 위로를 해주지만 결국 안 초시는 죽음을 택하였고 그 모습을 서 참의가 보았다.

서 참의는 안경화에게 알렸고 안경화는 한참 울었다. 서 참의가 관청에 알리자고 하였는데

안경화는 자신의 명예를 더 중요시 해, 안된다며 애원하였다.

서 참의는 그대신 장례를 장하게 제대로 치르라고 하였다.

서 참의가 말한대로 장례를 잘 치루었지만 서 참의와 박희완은 가식적인 감정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이 장례식에서 안 초시에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서 참의와 박희완 둘 뿐이었다.

작품 의도

이 작품은 나이가 들어 쇠락한 세 노인의 소망과 조절, 애환 그리고 삶과 죽음을 통해 1930년대 경제 사회상과 가족 관계의 변화상을 보여주고자 함.

[복덕방] 이태준

<시대적 배경>

1930년 서울의 한 복덕방은 소설의 주요 배경인 세명의 노인들이 서로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갖고 살아가는 공간이다. 복덕방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민중이 겪는 고통과 우울을 단독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다. 안초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표면적 이유는 부동산 투자의 실패로 인한 절망이지만 이면적 이유는 바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실패와 가족 공동체의 붕괴 때문이다. 소설속 안초시와 안경화가 대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둘의 대립은 구세대와 물질적 욕망만 쫓는 세대의 대립이 나타난다. 이 모습을 통해 도덕적 가치와 공동체를 중시하던 전통이 해체되었음을 보여준다.

주제-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의 좌절과 비애

갈래- 현대소설, 단편소설

성격- 현실 비판적, 사실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1930년대 서울 변두리의 한 복덕방

<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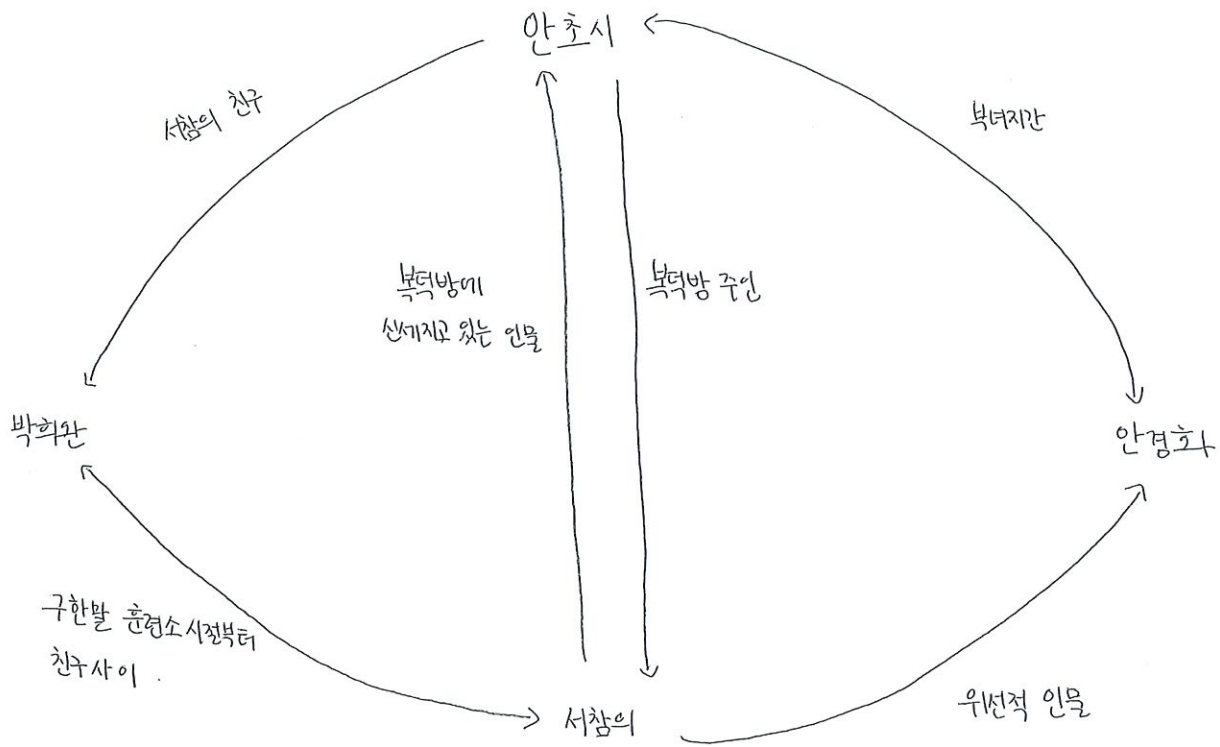
발단- 서참의와 박희완 안초시는 복덕방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뚜렷한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감. 그중에서도 안초시는 복덕방에서 재기를 꿈꾸고있음.

전개- 박희완을 통해 개발정보를 들은 안초시가 안경화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함

위기- 하지만 부동산 투기에 실패

절정- 투기에 실패한 안초시의 자살장면이 등장함. 그의 죽음을 반견한 서참의가 장례를 후하게 치르자 애기함

결말- 안초시의 장례때 안경화는 물론 주변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남. 그 모습을 본 서참의와 박희완의 울분으로 마무리



안초시: 여러번 사업실패로 인한 몰락 → 재기를 꿈꾸지만 좌절을 맞음 → 스스로 목숨을 끊음.

서참의: 구한말에 훈련소에서 참의로 일한 무관 > 과거를 그리워하는 인물

박희관: 일기를 열심히 하는 인물 > 아유 → 재판소에 대는 조카를 통해 대서임을 하고자 함.

안경화: 사회적 출세를 가장 우선시 여기는 이기적인 인물

* 구한말: 조선말기에 대한제국까지의 시기, 1897 ~ 1910년 일본정권을 까지,

* 대서임: 남을 대신하여 관청이나 법률 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고 보수를 받는 직업.

갈래: 현대소설, 단편소설, 세태소설

배경: 1930년대 서울 어느 복덕방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작품 밖 서술자)

주제: 노인들(구세대)의 애처로운 삶에 대한 연민,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소외되어 가는 구세대들

<사건 전개>

발단: 복덕방에서 무료하게 소일하는 안 초시, 서 참의, 박희완, 유명 무용가 딸 안경화가 있지만 가난한 안 초시의 삶

전개: 박희완으로부터 개발 정보를 듣고, 딸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하는 안 초시

위기: 땅 개발이 사기임이 밝혀지고, 서 참의는 비밀 유지 조건으로 성대한 장례를 당부

절정: 안 초시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서 참의는 비밀 유지의 조건으로 성대한 장례를 당부

결말: 영결식에서 경화와 지인들의 위선적 모습을 보고 울분을 느끼는 두 노인

<복덕방의 의미>

과거에 대한 회한을 품고 살지만 언젠가는 큰 성공을 하리라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인물들의 욕망과 그 좌절이 이루어지는 공간 또한 소외된 사람들의 정신적, 경제적 몰락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

<작품 해석>

65p <보기>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의 급변하는 시대상과 그 속에서 살아기는 신구세대의 대비되는 모습을 담고 있음. 시대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근대적 인물(안경화)는 구세대들과 달리 철저하게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드러내며, 이로 인해 구세대(안 초시, 박희완, 서 참의)와 갈등을 빚음,

<작품의 특징>

- 궁핍한 시대인 구세대의 현실을 고발함.
- 인간의 허황된 욕망과 그로 인한 파탄을 보여줌.
- 신세대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에 깔고있음.

<인물관계도>

안초시 - 딸에게 의지하며 서 참의의 복덕방에서 얹혀 지내는 이물, 허황한 욕심으로 파멸, 근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몰락하는 세대의 상징

안경화 - 안초시의 딸로, 유명한 무용가 신문명을 대표하는 이기적 위선적 인물,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체면을 먼저 생각함

서 참의 - 구한말 훈련원 참의를 지낸 무관으로, 군대 해산 이후 복덕방을 차려 생활함. 과거의 화려한 시절을 그리워하며 현실의 비애를 느끼는 인물

박희완 - 서 참의의 친구. 복덕방에서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대서사 직업을 준비하고 있다. 안 초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로 낭패를 본다.



박희완

안초시



서참의

친구
(개발 소식)

친구
(주검 발견)

(돈을 얻어냄)

부녀

(등한시함)



안경화

북대방

이태준

: 북대방이 넣는 방

갈래: 근대소설, 세태소설

생년: 1930년대 서풍의한 유희향

주제: 근대화의 유희속 소외된 노인들

의조설 비어

반어법

등장인물

구시[대] 신시[대]

서참의

안초시

박희와

갈등

안초시

안경호

참고

서참의의
박희와의
관계

안초시가 안경호
에게 장미장만 반
영의 생활

안경호

(안초시의 딸)

우렁한 우렁기

특징: 현실에서 소외된 노인들의 삶

줄거리

배경 - 안초시의 일상사

전개 - 북대방 주위 서참의의 과거와 현재

위기 - 박희와 영감의 소개로 딸에게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안초시

절정 - 사기극으로 밝혀진 딸 찾기 (안경호와 안초시
의 갈등)

결말 - 안초시의 자살과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두노인의 폭력 (안경호와 서참의의 갈등)

복덕방 이태준

3617 정술

갈래: 세태소설

성격: 비판적, 사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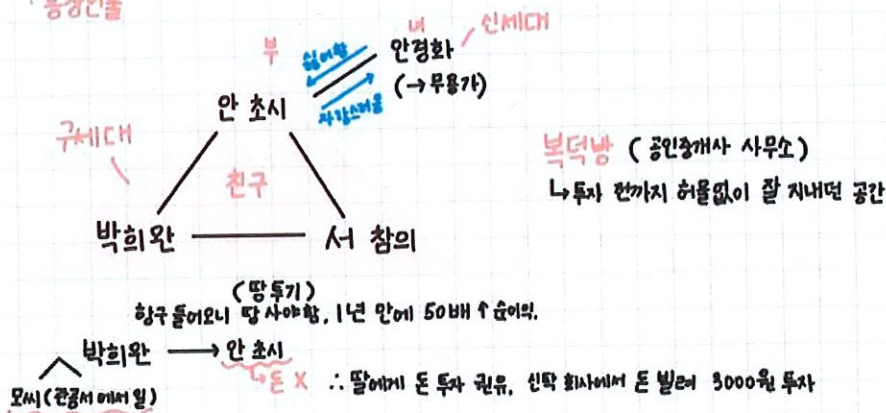
배경: 1930년대 서울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말세 강점기의 급변하는 시대상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신규 세대의 대비 (p165, 4번)

등장인물



But 거짓

자기 땅 팔아먹기 위해 속임,

안경화 - 화남, 아빠 원망

안 초시 - 딸에게 미안함 → 스트레스 → 자살

서 참의 - 안경화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러 찾아감

안경화 - 아버지가 자살 때문에 돌아가셔서 미안함,

서 참의 - 관청에 알리러 함

안경화 - 반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서 참의 - 알리지 X. (죽은 이유 발설하지 X)

안경화에게 보험금으로 장례 치료라고 함

서 참의 & 박희완 => 조문객들이 안 초시가 아닌 안경화를 보러온 것을 보고 위변으로 봄

∴ 안 초시의 몰락을 쓴 작품

